

IMF 이후 한국수산금융의 현황과 정책방향*

김 경 호 **

Recent Developments and Policy Directions
in Fisheries Finance in Korea

Kim, Kyoung-Ho

< 목 차 >

I. 서론	2. 수산정책자금의 지원현황
II. 수산금융시장의 구조와 규모	V. 수산금융의 정책방향
III. 수산금융의 수요	1. 수산정책자금의 특징과 문제점
1. 어가의 자산과 소득	2. 수산금융의 정책방향
2. 어가의 부채와 자금조달	VI. 결론
IV. 수산금융의 공급	참고문헌
1. 수산자금의 조달과 운용	Abstract

I. 서 론

95년 세계무역기구가 발족한 아래 국제무역질서가 한층 더 개방화되어 가고 있다. WTO체제는 원칙적으로 세계 모든 국가의 무차별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협정에서는 자국의 사정에 따라서 산업부문별로 일정한 유예조치를 주장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 농수산물은 단순히 산업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식량안보의 논리에 따라 각국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수산 부문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이다. 특히 수산업 부문은 규모의 영세성과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로 인해 시장개방이 이루어 질 경우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수산업의 개혁은 크게 수산금융문제, 수산물 유통개혁, 수산구조개혁의 세 가지 분야가 중심 대상이다. 수산금융개혁은 수산금융의 공급 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재원조달체계를 개선하는 것과 수산금융조직을 재편하는 것이며, 수산물 유통개혁은 수산물 시장개방과 임의 상장제 실시에 따른 산지 및 소비지 수산물 거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고, 수산구조개혁은 행정규제완화와 연근해 어업체질을 개선하여 EEZ체제와 새로운 어업협정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접수 : 2001년 9월 7일, 게재 확정 2001년 11월 30일

* 본 연구는 2000년도 신라대학교 교내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신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최근 새로운 어업협정으로 인해 어장축소, 조업을 저하, 어로경비의 증가, 수입 수산물의 증가로 인한 어가의 정체, 여기에 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에 따른 경비의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은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안의 하나는 수산자금의 확대와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금융비용을 줄이고 시설의 현대화, 과학화를 추진해 나가는 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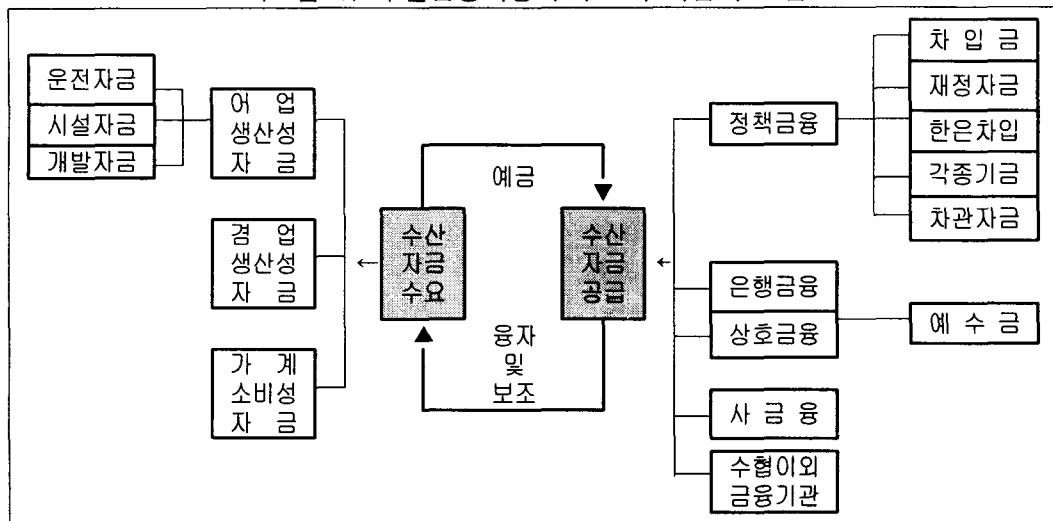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산금융구조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IMF 이후 우리나라 수산금융의 현황을 고찰한 후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산금융정책의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수산금융시장의 구조와 규모

수산금융시장은 다른 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산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금을 수요하는 측은 어가, 수산기업, 수산가공기업 등으로 구성된다. 수산자금의 수요를 기능별로 고찰하면 어업생산성자금, 견업생산성자금, 소비성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어업생산성자금은 어업생산에 활용되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발자금과 같은 것이며, 견업생산성자금은 농업, 상공업, 서비스업에 쓰이는 것이고, 소비성자금은 어가의 소비를 목적으로 수요되는 것이다.

수산자금의 공급은 상업금융, 정책금융, 상호금융, 사금융으로 구성되며, 수협을 통해서 공급되는 정책금융, 은행금융, 상호금융의 제도금융과 개인으로부터 조달되는 사금융, 농협·축협·시중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수협의 정책금융은 수협의 예수금, 재정자금, 한은차입금, 기금, 차관으로 구성된다. 상업금융은 수협의 예수금으로 이루어지며 상호금융은 회원조합의 예수금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수산금융시장의 구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수산금융시장의 구조와 자금의 흐름



출처 : 정상진, 금융산업개편과 수산업금융의 발전방향, 수협중앙회, 1996. p.35.

IMF 이후 한국수산금융의 현황과 정책방향

〈표 1〉 예금은행의 산업별 대출금 구성

(단위: 억 원, %)

년도	전산업	농업		수산업		광업		제조업		기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85	338,107	23,177	6.9	5,527	1.6	1,841	0.5	146,435	43.3	164,127	47.7
1990	740,286	62,491	8.4	11,244	1.5	2,673	0.4	310,729	41.9	353,149	47.7
1994	990,294	111,523	11.3	16,865	1.7	3,641	0.4	571,277	57.7	286,988	29.0
1998	1,447,675	167,011	11.5	29,181	2.0	5,226	0.4	706,888	48.8	539,369	37.3
1999	1,711,142	183,757	10.7	25,361	1.5	5,470	0.3	798,181	46.6	698,373	40.8
2000	2,018,590	188,243	9.3	28,157	1.4	6,394	0.3	897,204	44.4	898,592	44.5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수산금융시장의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예금은행의 대출액을 산업별로 고찰해 본 것이 <표 1>이다. 예금은행의 수산업 부문에 대한 대출액은 2000년 약 2조 8,157억 원이며 대출비중은 전산업의 1.4%로 98년의 2.0%에서 많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수준은 수산업 생산액이 국민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99년의 경우 경상가격으로 어업총생산액은 약 2조 1,140억 원이며 같은 해 GDP에 대한 비중은 약 0.5%에도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다¹⁾. 따라서 GDP 가운데 수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예금은행의 대출금 가운데 수산업 대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 예금은행 자금별 대출금 구성

(단위: 억 원, %)

년도	금융자금	수산업자금		재정자금	수산업자금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8	1,826,786	5,282	0.3	175,368	17,117	9.8
1999	2,297,626	5,931	0.3	204,450	18,707	9.1
2000	2,897,724	8,328	0.3	210,207	18,808	8.9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다음으로 예금은행의 자금별 대출금 구성에서 점하는 비중을 보면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도 금융자금에서 대출된 수산자금은 8,328억 원으로 금융자금 대출금 총액의 0.3%를 점하고 있으며 재정자금에서 대출된 수산자금은 1조 8,808억 원으로 재정자금 대출금 총액의 8.9%를 점하고 있다. 금액면에서 보더라도 재정자금으로부터 수산자금으로 대출된 액수가 금융자금으로부터 수산자금으로 대출된 액수의 2배 이상을 점하고 있어, 예금은행에서의 수산금융은 주로 재정자금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본 논문의 <표 19>에서 보면 0.44%로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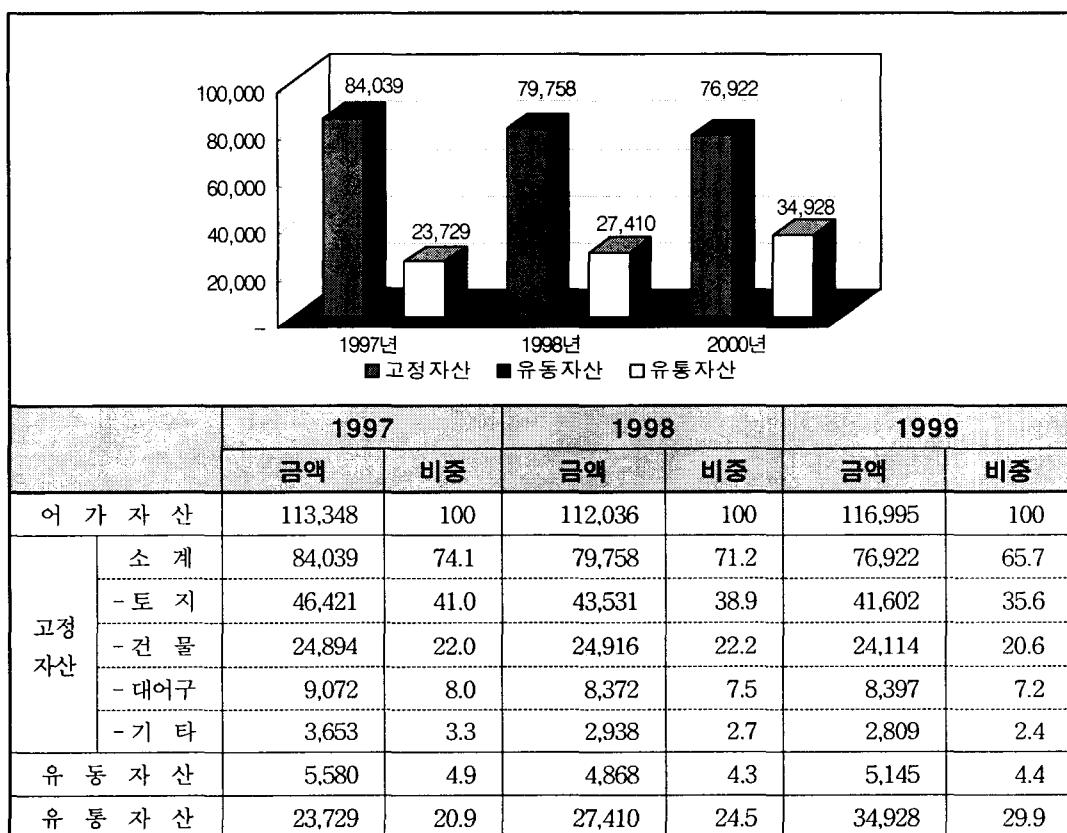
III. 수산금융의 수요

1. 어가의 자산과 소득

수산금융의 수요를 고찰하기 위해 수산금융의 자금수요원인 어가의 자금수요행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어가의 자산과 부채 구성을 고찰해 보면 1999년 어가당 평균 자산은 116,995천 원으로 98년의 112,036천 원보다 4.4% 증가했으며, 토지, 건물, 어선 등 고정자산이 76,922천 원으로 65.7%, 어로용, 양식용, 농수산물 재고량 등 유동자산이 5,145천 원으로 4.4%, 현금, 예치금 등 유통자산이 34,928천 원으로 29.9%를 각각 점하고 있다.

〈도표 1〉 어가의 자산 구성

(단위: 천 원, %)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통계, 각년도.

추세로 보면 어가의 고정자산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유통자산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99년 어가자산의 증가는 주로 이 유통자산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1999년도 어업 형태별 어가의 자산 보유를 고찰해 보면, 먼저 어가자산액은 어선비사용

IMF 이후 한국수산금융의 현황과 정책방향

가구, 동력선사용가구, 양식업가구의 순으로 큰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가자산에서 고정자산이 점하는 비중은 어선비사용가구, 동력선사용가구, 양식업가구 순으로 커지고 있음에 비해 유통자산의 경우는 반대로 양식업가구, 동력선사용가구, 어선비사용가구 순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3〉 어업 형태별 어가자산 구성(199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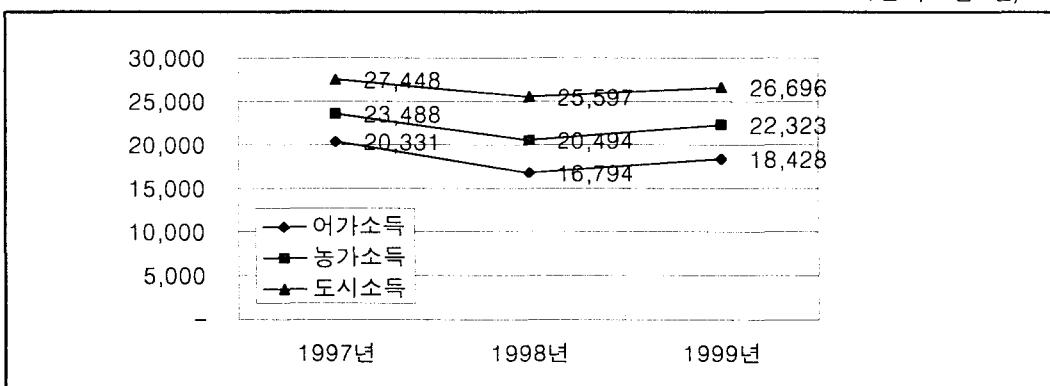
(단위: 천 원, %)

어가자산	고정자산			유동자산	유통자산
		토지	대여구		
어선비사용가구	95,428	61,028(64.0)	38,596(40.4)	209 (0.2)	2,157(2.3)
동력선사용가구	122,608	80,381(65.6)	38,203(31.2)	14,811(12.1)	6,220(5.1)
양식업가구	130,750	88,998(68.1)	52,057(39.8)	5,282 (4.0)	6,737(5.2)
평균	116,995	76,922(65.7)	41,602(35.6)	8,397 (7.2)	5,145(4.4)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통계.

〈도표 2〉 어가의 소득 동향

(단위: 천 원, %)



구 분	1997		1998		199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어 가 소 득	20,331	100.0	16,794	100.0	18,428	100.0
- 어 업 소 득	11,768	57.9	9,254	55.1	10,323	56.0
- 어 업 외 소 득	5,820	28.6	5,201	31.0	4,882	26.5
- 이 전 수 입	2,743	13.5	2,339	13.9	3,223	17.5
농 가 소 득	23,488	86.6*	20,494	81.9*	22,323	82.6*
도 시 가 계 소 득	27,448	74.1**	25,597	65.6**	26,696	69.0**
어 가 부 채	11,906	58.6***	11,319	67.4***	11,555	62.7***
농 가 부 채	13,012	55.4****	17,011	83.0****	18,535	83.0****

* 농가소득에 대한 어가소득의 비율임. ** 도시가계 소득에 대한 어가소득의 비율임.

*** 어가소득에서 어가부채가 점하는 비중임. **** 농가소득에서 농가부채가 점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통계, 각년도.

김 경 호

또한 동력선사용가구의 경우 토지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신 대여구가 자산에서 점하는 비중이 크다. 전반적으로 고정자산이 점하는 비중이 90년대 초에 비해 거의 4할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고정자산 가운데 토지자산의 비중 감소와 유통자산의 비중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3> 참조).

어가의 소득은 1999년 가구당 평균 18,428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 9.7%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농가소득과 도시가계소득의 각각 82.6%, 69.0%에 불과한 수준이다. 농가소득과 도시가계소득에 대한 어가소득의 이 같은 비율은 97년도에는 각각 86.6%와 74.1%였는데,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적 침체기인 98년도에 81.9%와 65.6%로 저하되었다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이다. 하지만 99년도 어가 소득의 회복은 주로 이전수입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며 어업소득의 증가는 11.6%에 불과하다.

1999년 어가의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은 62.7%로 농가의 소득에 대한 부채비율 83.0%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수산업의 만성적인 저수익률로 인해 어민들은 가계비 등의 소비성 자금을 차입하게 됨으로써 부채상환 능력이 결여되고 있다.

<표 4> 어업 형태별 어가의 수입 구성(1999년)

(단위: 천 원, %)

구 분	어업수입	겸업수입	그중 농업수입	어업 및 겸업수입
어선비사용가구	7,698(55.2)	6,256(44.8)	5,447(39.0)	13,954(100.0)
동력선사용가구	19,151(85.0)	3,388(15.0)	2,260(10.0)	22,539(100.0)
양식업 가구	28,055(76.9)	8,425(23.1)	7,257(19.9)	36,480(100.0)
평 균	18,033(77.6)	5,196(22.4)	4,156(17.9)	23,229(100.0)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통계.

다음으로 어업 형태별 어가의 수입 구성을 살펴보면,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형태별 어가의 수입은 어선비사용가구(13,954천 원), 동력선사용가구(22,539천 원), 양식업가구(36,480천 원)의 순으로 크다. 하지만 어업수입과 겸업수입 구성에서는 순서가 달라지고 있다. 어업수입의 경우는 동력선사용가구, 양식업가구, 어선비사용가구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겸업수입의 경우는 반대로 어선비사용가구, 양식업가구, 동력선사용가구의 순으로 나타난다. 겸업수입은 그 대부분이 농업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어가의 자금수요는 과도한 고정자산비율, 상업화된 금융행태, 상대적으로 큰 자금수요, 영세한 익자규모, 자금의 혼용, 자금수요의 계절성과 낮은 자금 회전율, 높은 사채 의존도, 차입금의 상환기피, 내적자본제한에 의한 투자제한 등의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산업의 위험성, 이동성, 중단성, 불확실성, 불규칙성, 상품판매성 등 생산의 구조적 특성에서 초래되기 때문에 정책금융의 강화를 통해 보완될 수 있는 것들이다.

2. 어가의 부채와 자금조달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어가의 부채는 1999년 11,555천 원으로 어가소득의 62.7%를 점하고 있다. 이는 1997년 어가 소득의 58.6%를 점하던 것이 98년에는 67.4%로 급증한 후 다시 약간 하락한 것이다. 93년의 이 비중이 53.1%였던 것에 비하면 어가의 경영이 악화되어 움음을 알 수 있다. 어가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중도 10%전후를 점하고 있다. 이 역시 90년도 초의 7%대에서 많이 증가한 것이다.

〈표 5〉 용도별 어가의 부채 구성

(단위: 천 원, %)

구 분	1997		1998		199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어가자산	113,348	10.5*	112,034	10.1*	116,995	9.9*
어가자산(토지자산 제외)	66,927	17.7**	68,503	16.5**	75,393	15.3**
어가소득	20,331	58.6***	16,794	67.4***	18,428	62.7***
어가부채	11,906	100.0	11,319	100.0	11,555	100.0
용도별	생 산 성 부 채	9,513	79.9	9,056	80.0	8,294
	- 어업자금	5,512	46.3	4,733	41.8	4,165
	- 겸업자금	4,000	33.6	4,324	38.2	4,129
	가 계 성 부 채	1,762	14.8	1,794	15.8	2,097
	상 환 용 부 채	631	5.3	469	4.1	1,164

* 어가부채가 어가자산에서 점하는 비중임.

** 어가부채가 어가자산(토지자산 제외)에서 점하는 비중임.

*** 어가부채가 어가소득에서 점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통계,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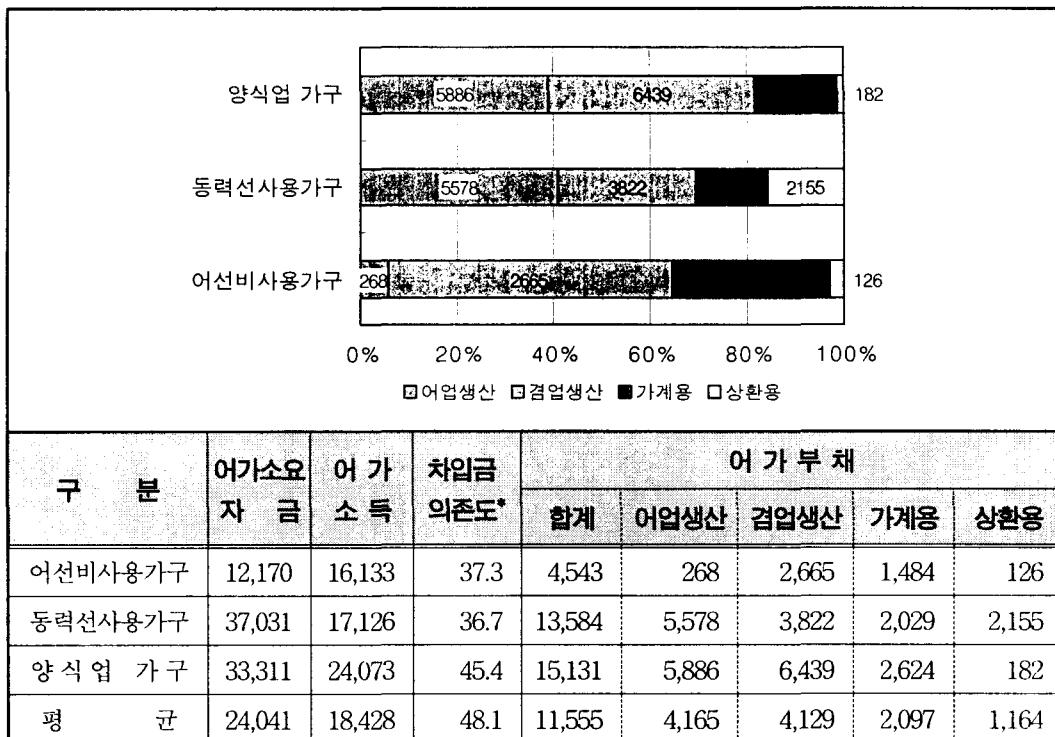
어가의 부채는 어업생산용, 겸업생산용, 가계용, 부채상환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업생산용 부채의 비중은 1997년 46.3%에서 99년에는 36.1%로 약 10%가까이 하락했다. 이에 반해 겸업 생산용 부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가계용부채와 상환용 부채의 증가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다.

어업형태별로 어가의 부채구성을 고찰해 본 것이 <도표 3>이다. 특징적인 것은 어선비사용가구의 부채구성은 겸업생산을 위한 부채와 가계용부채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동력선사용가구와 양식업가구는 어업생산을 위한 부채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특히 동력선사용가구의 경우에는 부채상환용부채의 비중이 매우 크다. 1999년 어가소요자금의 부채의존도는 48.1%로 거의 절반을 점하고 있다. 이는 어가의 소득수준이 낮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부채의존도가 가장 큰 어업 형태는 양식업으로 45.4%를 점하고 있다.

김 경 호

〈도표 3〉 어업 형태별 어가의 부채의존도 및 부채 구성(1999년)

(단위: 천 원, %)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통계.

전반적으로 부채를 어업생산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겸업생산이나 가계용 및 부채상환용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크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어가가 기업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미분화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어가는 소비성 자금과 생산성 자금을 혼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가 자금의 조달과 운용상황을 고찰하기 위해 <표 6>을 작성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자금조달과 운용에서 금융계정이 평균 4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어가경영이 상당히 상업화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어가의 자금조달에서 경상계정이 점하는 비중은 1988년 58.5%, 1993년 56.1%, 1999년 54.9%를 나타내고 있어, 90년대 들어오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또한 어가의 자금 운용면에서 경상계정의 비중은 1988년 48.5%, 1993년 43.6%, 1999년 48.8%로 50%가까운 비중을 점하고 있다.

어가의 부채를 차입처별로 고찰해 본 것이 <표 7>이다. 먼저 제도금융시장을 통한 차입규모가 80%이상의 비중을 점하고 있어 어가의 차입 행태가 크게 제도금융화 되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사금융을 통한 차입은 20%이하이지만, 90년대 후반 들어 사금융 차입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²⁾ 1999년 어가의 차입금 11,555천 원 가운데 수협을 통한 차입금이 4,269천 원으로 37.0%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98년

IMF 이후 한국수신금융의 현황과 정책방향

41.0%에서 많이 감소한 것이다. 그에 비해 농축협을 통한 차입금은 1999년 4,751천 원으로 수협으로부터의 차입금액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어업 생산용 자금을 수협으로부터 충분히 조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액은 3.7%에 불과해, 어가차입의 조달원이 주로 수협, 농협, 축협임을 알 수 있다.

〈표 6〉 어가의 자금 조달 및 운용의 구성 변화

(단위: 천원, %)

구 분	1988년도		1993년도		1999년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조 달	경 상 계 정	12,216	58.8	22,480	56.1	28,830
	- 어업수입	7,881	38.0	12,275	30.7	18,033
	- 겸업수입	2,286	11.0	4,174	10.4	5,205
	- 사업외수입	838	4.0	2,507	6.3	2,369
	- 이전수입	1,211	5.8	3,525	8.8	3,223
	자본계정	780	3.8	1,086	2.7	1,475
	금융계정	7,769	37.4	16,479	41.2	22,185
	- 유통자산매각	6,111	29.4	12,630	31.5	17,183
	- 차입증가	1,658	8.0	3,849	9.6	5,002
합 계		20,765	100.0	40,045	100.0	52,490
운 용	경상계정	10,079	48.5	17,460	43.6	25,640
	- 어업지출	4,430	21.3	6,054	15.1	7,710
	- 겸업지출	689	3.3	1,590	4.0	3,550
	- 사업외지출	276	1.3	406	1.0	741
	- 가계지출	4,684	22.6	9,410	23.5	13,639
	자본계정	1,311	6.3	4,345	10.9	3,356
	금융계정	9,329	44.9	17,914	44.7	25,445
	유통자산매입	7,380	35.5	15,155	37.8	21,249
	차입금상환	1,949	9.4	2,759	6.9	4,196
	조정	46	0.2	326	0.8	-1,951
3.7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통계, 각년도.

2) 사금융을 통한 어가의 자금 차입 비중은 80년대 초반만 해도 거의 절반을 점하고 있었으나 90년대 초에는 20%대로 줄어들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90년대 중반이후 다시 조금씩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김 경 호

〈표 7〉 차입처별 어가의 부채 구성

(단위: 천 원, %)

구 분	1997		1998		199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어 가 부 채	11,906	100.0	11,319	100.0	11,555	100.0
차입처별 부 채	금융기관	10,282	86.4	9,588	84.7	9,451
	-수 협	4,872	40.9	4,636	41.0	4,269
	-농 축 협	4,773	40.1	4,513	39.9	4,751
	-기 타	637	5.3	438	3.9	431
	개인차입	1,624	13.6	1,731	15.3	2,104
						18.2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통계, 각년도

IV. 수산금융의 공급

1. 수산자금의 조달과 운용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산자금의 공급은 상업금융 정책금융, 상호금융, 사금융으로 구성되며, 수협을 통해서 공급되는 정책금융, 은행금융과 상호금융의 제도금융과 개인으로부터 조달되는 사금융, 농협·축협·시중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수협의 정책금융은 수협의 예수금, 재정자금, 한은차입금, 기금, 차관으로 구성된다. 상업금융은 수협의 예수금으로 이루어지며 상호금융은 회원조합의 예수금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수산금융의 공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협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이나 사금융, 비은행 금융기관이 수산부문에 공급하는 자금까지도 포함해야만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료의 한계상 수협중앙회의 계정에 한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이는 수산자금의 공급이 수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이나 사금융에서 수산부문으로 들어가는 부분과 수협에서 다른 부문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수산금융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는데는 많은 한계를 가진다.

수협의 수산자금조달의 재원은 크게 자체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눌 수 있다. 자체자금은 예수금, 상호금융예탁금, 출자금 및 공제기금 적립금 등으로 나누어지며, 차입금은 재정차입금, 금융차입금, 차관으로 구분된다. 1999년도 수협의 총 자금조달 규모는 14조 3,780억원으로 1998년보다 19.4%가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2조 3,32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IMF 이후 한국수산금융의 현황과 정책방향

〈표 8〉 수산자금의 조달 내역

(단위: 억 원, %)

연도	합계(증감률)	자체자금		차입금		기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7	91,559 (5.2)	66,704	72.9	17,238	18.8	7,617	8.3
1998	120,460(31.6)	90,465	75.1	19,957	16.6	10,038	8.3
1999	143,780(19.4)	105,167	73.1	22,848	15.9	15,765	11.0

자료 : 수협중앙회, 수협통계조사월보.

자체자금의 조달재원 내역을 고찰해 보면 저축을 재원으로 한 예수금, 상호금융예탁금, 출자금 및 충당금과 각종 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협자체자금은 1999년 10조 5,167 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6.3% 증가했으며, 이 중 예수금은 4조 7,930억 원으로 45.6%, 상호금융예탁금은 5조 3,228억 원으로 50.6%, 공제적립금은 4,259억 원으로 4.0%, 충당금은 1,311억 원으로 1.2%를 점한다.

〈표 9〉 자체자금 조성 내역

(단위: 억 원, %)

연도별	합계(증감률)	예수금		상호금융		자본금		공제적립금		충당금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7	66,704 (4.1)	22,576	33.8	40,816	61.2	1,297	1.9	1,440	2.2	575	0.9
1998	90,465(35.6)	34,165	37.8	49,804	55.1	2,095	2.3	1,855	2.1	2,546	2.8
1999	105,167(16.3)	47,930	45.6	53,228	50.6	▲1,561	▲1.5	4,259	4.0	1,311	1.2

자료 : 수협중앙회, 수산통계조사월보.

재정차입금 투용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되어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편성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투용자 중 수산업과 관련되는 재정용자기금에는 재특자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국민투자기금, 농특자금 등이 있다. 정부의 경제발전계획에 의한 수산진흥사업의 투용자 재원은 매년도 정부예산에 책정되어 수협중앙회가 대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괄대하를 받아 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9년 말 현재 수협 재정자금 차입금 규모는 2조 1,996억 원으로 1998년 말에 비해 12.8%가 증가한 것이다. 재정 차입금 가운데 재특자금과 농특자금의 비중이 약 85%를 점하고 있으며 농안기금의 경우는 약 10% 내외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국민투자기금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보인다.

김 경 호

〈표 10〉 재정 차입금 내역

(단위: 억 원, %)

연도	합계(증감율)	재목자금		농안기금		국민투자기금		농특자금		기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7	16,538(19.6)	7,404	44.8	1,797	10.9	347	2.1	6,718	40.6	272	1.6
1998	19,498(17.9)	9,179	47.1	1,856	9.5	197	1.0	7,921	40.6	345	1.8
1999	21,996(12.8)	10,260	46.6	2,684	12.2	50	0.2	8,564	38.9	438	2.0

자료 : 수협중앙회, 수협통계조사월보.

〈표 11〉 금융차입금 내역

(단위: 억 원, %)

연 도	합계(증감율)	한은차입금		외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7	700(▲38.2)	552	78.9	148	21.1
1998	459(▲34.4)	34	7.4	425	92.6
1999	852(85.6)	87	10.2	765	89.8

자료 : 수협중앙회, 수산통계조사월보.

금융차입금은 수산자금 소요액 중 자체자금과 재정자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한 때 수산자금의 차입처는 농협, 한국은행, 산업은행, IBRD 등 4개 기관이었으나 1984년 이후 한국은행으로부터만 차입을 하고 있다. 그런데 1997년부터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감소하는 대신 외화차입금이 크게 증가해 왔다. 외화차입은 80년도부터 이루어졌는데, 90년대 초에는 거의 없다가 95년부터 다시 재개되어 97년부터 급증하고 있다³⁾.

1999년 말 현재 금융차입금은 852억 원으로 1998년에 비해 85.6% 증가했다. 이는 90년대 동안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가 역전된 것인데, 한은차입금이 크게 줄어든 대신 그 자리를 외화차입금이 메워줌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이처럼 조달된 수산자금의 운용상황을 고찰해 본 것이 <표 12>이다. 1999년 조달된 14조 3,780억 원의 수산자금 가운데 6조 5,755억 원이 대출되어 수산자금의 45.7%를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제사업채권과 기타 현금, 예치금, 고정자산, 재고자산, 유가증권 등에 운용되고 있다. 대출금의 비중은 금액 면에서는 증가하고 있지만 비중으로 보면 1997년 63.2%에서 상당히 하락한 수준이다.

1999년 대출금의 운용구조를 보면 영어자금에 1조 154억 원(7.1%) 원양출어자금 1,105억

3) 수산통계조사월보에 의하면 외화차입금은 1980년에서 1989년까지 매년 평균 약 58억 원이었으나 90년부터 96년까지는 95년의 2억 원을 제외하고는 통계치로 잡히지 않을 정도였다.

IMF 이후 한국수산금융의 현황과 정책방향

원(0.8%), 중장기 개발자금 5조 4,496억 원(37.9%)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 수산자금의 운용에서는 현금 등 기타부문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유가증권에 대한 자금의 유입이 크게 증가한데서 비롯한 것이다. 유가증권에 대한 자금 운용액은 1998년 1조 1,816억 원에서 1999년에는 3조 4,516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수산자금의 24.0%를 점하고 있다.

〈표 12〉 수산자금의 운용

(단위: 억 원,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7,060	100.0	91,559	100.0	120,460	100.0	143,780	100.0	
대출금	소 계	47,598	54.7	57,880	63.2	63,191	52.5	65,755	45.7
	영 어 자 금	7,259	8.3	8,181	8.9	9,218	7.7	10,154	7.1
	원양출어자금	966	1.1	1,080	1.2	1,037	0.9	1,105	0.8
	중장기개발자금	39,373	45.2	48,619	53.1	52,936	43.9	54,496	37.9
경 제 사 업 채 권	2,783	3.2	1,691	1.8	2,395	2.0	1,425	1.0	
기 타	소 계	36,679	42.1	31,988	34.9	54,874	45.6	76,600	53.3
	현 금	3,651	4.2	1,724	1.9	1,136	0.9	1,250	0.9
	예 치 금	8,015	9.2	1,366	1.5	7,445	6.2	5,076	3.5
	고 정 자 산	9,170	10.5	1,263	1.4	1,260	1.0	5,363	3.7
	재 고 자 산	991	1.1	-	-	-	-	427	0.3
	유 가 증 권	6,973	8.0	4,583	5.0	11,816	9.8	34,516	24.0
	기 타	7,879	9.1	23,052	25.2	33,217	27.6	29,968	20.8

자료 : 수협중앙회, 수산통계조사월보.

2. 수산정책자금의 지원 현황

수산업의 자금은 대부분 정책금융의 형태로 공급되어 왔다. 정책금융은 정부가 특정 부문에 대해서 자금의 가용도를 증대시켜주거나 또는 금리 비용을 경감시켜 그 부문의 발전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금융이다. 이는 정부의 예산이나 기금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정책 자금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조성되어 수산업에 지원되는 자금도 포함한다.

세출회계 기준상 전체 수산정책사업은 어업구조개선, 유통구조개선, 수산기술개발, 정예인력육성, 어촌소득원 개발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⁴⁾,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상의 전체 수산정책 사업은 수산자원조성, 어장환경관리, 어업구조조정 및 개발, 면세유·영어

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방안, 2001. 6. p.194.

김 경 호

자금, 어촌개발, 유통지원, 지도선 및 급유시설, 어선어망지원, 어업인 육성, 기타지원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⁵⁾.

해양수산부 세출예산 자료에 따르면 1992년부터 1999년까지 8년 간 수산정책자금으로 투자된 총금액은 약 5조 3,948억 원이다. 이는 국고 지원(43.5%), 국고 융자(42.1%), 지방비(7.7%), 어업인 자체부담(6.7%)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재원별로 고찰해 보면 일반회계가 1조 4,642억 원으로 27.1%, 재특회계가 1조 758억 원으로 19.9%, 농특회계가 2조 8,548억 원으로 52.9%를 점하고 있다. 이로써 볼 때 수산정책자금의 절반 이상을 농특회계가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농특회계가 신설되면서 수산정책자금의 재원조달이 원활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수산정책자금의 투자 재원별 구성(1992~1999년)

(단위: 억 원, %)

구 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담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3,467	43.5	22,690	42.1	4,177	7.7	3,614	6.7	53,948(100.0)
일반회계	12,661	54.0	0	-	1,676	40.1	305	8.4	14,642 (27.1)
재특회계	0	-	10,758	47.4	0	-	0	-	10,758 (19.9)
농특회계	10,806	46.0	11,933	52.6	2,501	59.9	3,309	91.6	28,548 (52.9)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 방안, 2001. 6. p.82.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고 총액 2억 3,467억 원 가운데 일반회계가 1조 2,661억 원으로 54.0%를 점하고 있으며, 농특회계가 1조 806억 원으로 46%를 담당하고 있다. 융자의 경우는 농특회계 52.6%, 재특회계 47.4%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비는 농특회계가 59.9%, 일반회계 40.1%를 점하고 있다. 자담은 총 3,614억 원중 일반회계가 305억원으로 8.4%에 불과하고 나머지 91.6%는 농특회계가 점하고 있다.

수산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이 농특회계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1992년부터 1999년까지 투입된 분야별 투자액은 어촌소득원 개발 및 어업생산기반시설이 1조 4,171억 원으로 전체의 26.3%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어업경영지원에 1조 733억 원이 투입되어 19.9%를 점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및 어업자원관리 16.4%, 어장환경개선 및 기르는 어업에 13.6%, 수산물 유통 및 가공이 12.2% 등의 순으로 점하고 있다⁷⁾.

5) 이광남외 2인, 수산보조금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00. 12. p.67.

6) 1999년도 농특회계는 1,996억 원이었다.

7) 이것은 세출회계 기준상 수산정책사업을 분류한 것이다.

〈표 14〉 수산정책자금의 사업분야별 투자내역(1992~1999년)

(단위: 억 원, %)

구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본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23,467	100	22,690	100	4,177	100	3,614	100	53,948(100.0)
어장환경개선 및 기 르는 어업	4,546	19.4	1,115	4.9	1,228	29.4	421	11.6	7,310 (13.6)
연근해어업구조조정 및 어업자원관리	3,852	16.4	3,531	15.6	266	6.4	1,202	33.3	8,850 (16.4)
어촌 소득원 개발 및 어업생산기반시설	11,268	48.0	58	0.3	2,618	62.7	228	6.3	14,171 (26.3)
수산물 유통 및 가공	670	2.9	4,201	18.5	65	1.6	1,668	46.2	6,604 (12.2)
국제 어업 협력 및 원양어업	477	2.0	96	0.4	0	0.0	10	0.3	583 (1.1)
수산기술개발	2,104	9.0	4	0.0	0	0.0	2	0.0	2,109 (3.9)
어업인육성, 교육 및 홍보	550	2.3	3,037	13.4	0	0.0	0	0.0	3,587 (6.6)
어업 경영 지원	0	0.0	10,648	46.9	0	0.0	85	2.4	10,733 (19.9)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 방안, 2001. 6. p.82.

1999년도 수산정책자금 집행내역을 보면 총 2조 4,129억 원으로 전년의 1조 7,382억 원에 비해 약 38.8% 증가했다⁸⁾. 이 중에서 국고와 지방비에 의한 직접 보조가 1조 228억 원으로 42.4%를 점하고 있으며, 융자지원액과 우대금리로 인한 이차보조액이 1조 3,901 억 원으로 57.6%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대상별로 고찰해 보면 면세유와 영어자금이 1조 6,808억 원으로 전체 수산정책자금의 69.7%를 점하고 있다. 면세유는 모두 직접보조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 4,473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영어자금은 융자와 이차보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조 2,335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어업구조조정 및 개발에 4,343억 원이 지원되어 약 18%를 점하고 있다. 이 항목은 98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어업협정에 따른 피해 어업인에 대한 간척사업이 실시된 것으로 기인하고 있다. 이 두 항목에만 전체 수산정책자금의 약 88%가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이것은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1999년도 해양수산부의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한 수산정책금액 총액은 2조 5,539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 방안, p.195.

김 경 호

〈표 15〉 1999년도 수산정책자금 현황

(단위: 억 원, %)

구 分	1998년			1999년			합계(비중)
	지원금	융자 금	이차	지원금	융자금	이차	
수산자원조성	649	-	-	649 (3.7)	517	-	517 (2.1)
어장환경관리	260	-	-	260 (1.5)	266	-	266 (1.1)
어업구조조정 및 개발*	388	223	17	611 (3.5)	4,160	183	7 4,343(18.0)
면세유·영어자금	2,682	10,982	860	13,664(78.6)	4,473	12,335	442 16,808(69.7)
어촌개발	429	35	3	464 (2.7)	404	20	1 424 (1.8)
유통지원	147	694	54	841 (4.8)	280	760	27 1,040 (4.3)
지도선·급유시설	64	2	0	66 (0.4)	36	1	37 (0.2)
어선어망지원	51	344	27	395 (2.3)	31	343	12 374 (1.6)
어업인육성	26	406	32	432 (2.5)	-	259	9 259 (1.1)
기타지원	94	-	-	94 (0.5)	61	-	- 61 (0.3)
총 계	4,696 (27.0)	12,686 (73.0)	993	17,382(100.0) (100.0)	10,228 (42.4)	13,901 (57.6)	498 24,129(100.0) (100.0)

* 1999년도의 국제규제 어선감척지원금 3,439억 원 포함됨.

자료 : 해양수산부, '98 및 99'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각년도.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내부자료.

출처 : 이광남외 2인, 수산보조금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수협중앙회, p.71.

〈표 16〉 면세유 지급 현황

(단위: 억 원, 천 드럼)

구분	합계	경유	경질증유	증유	휘발유	기타	금액
1997	7,340	6,345	739	33	185	38	1,268
1998	7,256	6,152	699	32	342	31	2,537
1999	8,390	7,095	741	35	474	45	4,037
2000	8,000	6,600	895	50	420	35	3,452

주 : 2000년도는 계획치임.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출처 : 해양수산부,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0년도, p.286.

〈표 17〉 영어자금 공급 실적

(단위: 억 원, %)

연도 (A)	소요액 (B)	공급액					운용	
		금액(B)	B/A	재정자금	자체자금	상호금융	연근해	원 앙
1998	25,776	10,800	41.8	5,666(52.5)	4,134(38.3)	1,000 (9.3)	9,650(89.4)	1,150(10.6)
1999	27,970	12,050	43.1	5,814(48.2)	4,796(39.8)	1,440(12.0)	10,900(90.5)	1,150 (9.5)
2000	29,749	12,050	40.5	5,814(48.2)	4,796(39.8)	1,440(12.0)	10,900(90.5)	1,150 (9.5)

주 : 2000년도는 계획치임.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출처 : 해양수산부,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0년도, p.180, 281.

수산정책자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면세유와 영어자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먼저 면세유 지금 현황을 보면 1999년 총 8,390드럼이 지원되었으며, 이로 인해 어업인이 받는 수혜액은 약 4,037억 원이었다. 표에서 1998년도의 경우 지원 드럼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유가상승에 따라 면세에 따른 수혜액이 자동적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1999년도의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설명될 수 있다.

1999년도 영어자금의 공급규모는 총 1조 2,050억 원으로 재정자금 5,814억 원(48.2%), 자체자금 4,796억 원(39.8%), 상호금융 1,440억 원(12.0%)로 조달되었으며, 이 가운데 90% 이상을 연근해어업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영어자금 공급은 어업인 소요액 2조 7,970억 원의 약 43.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V. 수산금융의 정책방향

1. 수산정책자금의 특징과 문제점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산금융의 현황을 수산자금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각에서 고찰해 왔다. 수산금융정책의 요체는 바로 수산정책자금의 조달과 운영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고찰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정책자금의 특징과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번째 들 수 있는 것은 수산정책자금의 재원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한은 및 차관자금과 각종 기금 등 다양한 원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재원별로 자금을 조달·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금의 재원이 다양하다는 점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자금의 조달과 관리가 재원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자금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고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두번째로는 정책자금의 지원은 국고로부터의 직접적인 지원이나 우대금리를 통한 지

김 경 호

원이 두드러진 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정책자금이 우대금리로 제공되고 있는 한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항상적으로 초과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수산금융시장에서 금리의 시장기능이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번째로 정책자금 중 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지지자금, 영어자금, 어가부담경감 같은 단기적인 소모성 자금의 비중이 매우 높고 수산업 구조개선 사업 자금의 비율이 낮아서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이 제약되어 있다. 앞에서 고찰했듯이 1999년도 정책자금 중 면세유 및 영어자금 등에 지급된 비중이 전체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정책 자금용자의 경우 전체 응자액의 약 78%가 영어자금 지원으로 편재되어 있고, 또 대부분의 응자금이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이어서 수산업 생산 기반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보다는 소득을 보조하는 성격이 강하다. 직접적인 소득 보조의 성격이 강한 정책자금은 국제적인 수산물 논의 동향에 따라 삽감해야 할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네번째로 정책자금은 우대금리로 인해 그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훨씬 큰 실정이므로 자금을 적절히 배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자금을 배분할 때 경제성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수혜대상자의 수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의 어업이 주로 생계유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어업은 상업적 기업형 어업인 원양 및 균해 어선들이 어업구조조정 및 국제적 규제로 인해 감척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영세한 연안어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생계 유지형 어업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표 18> 참조).

〈표 18〉 종류별 어선의 구성

(단위: 척, %)

구 분	1998년	1999년
어 업 인 수 (명)	172,701	170,590
어선척수	총어선 척수	90,997(100.0)
	원 양 어 선	628 (0.7)
	근 해 어 선	6,165 (6.8)
	연 안 어 선	84,204 (92.5)
		94,852(100.0)
		620 (0.7)
		5,937 (3.5)
		88,259 (95.8)

주 : 어선 수의 증가는 우선적으로 10톤 이하의 무허가 어선을 등록한 결과임.

자료 : 이광남, 수산보조금에 대한 OECD국가들과 한국과의 비교분석, 수협조사월보, 2001.3.

마지막으로 수산업 자금의 지원은 대부분의 사업이 중앙정부의 기획에 의해 지방정부에 하달되며 지원 대상도 대부분 지역별로 배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산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업 주체의 사업계획은 지원할 사업 자체가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정해진 규정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의 제출 자체가 형식적인 요식절차 정도로 취급되기까지 한다.

또한 정책자금지원에서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사업관리는 행정기관에 의해

IMF 이후 한국수산금융의 현황과 정책방향

이루어지고 있고 대출관리는 수산금융기관에서 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수산금융기관에서 위험 부담을 우려하고 담보 읍자를 유도하게 되어 효과적인 사업 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담보 능력에 따라 대출액을 정하는 자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영세어가일수록 대출을 받기 힘들고 고정자산이 많은 대규모 어가일수록 자금 차입이 용이하다. 따라서 영세어가일수록 필요한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의 조달이 어렵고 사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된다. 뿐만 아니라 정책 자금의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미비로 동일 종류의 사업에 대한 각기 상이한 조건의 정책 자금이 공급되고, 부문간 사업간 자금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기도 한다.

2. 수산금융의 정책방향

국제사회에서 수산부문에 대한 논의 동향을 보면 앞으로 수산정책자금의 운영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산정책자금의 지급이 국제기구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이것이 수산물 무역을 왜곡시키고 어업환경을 훼손시켜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2000년 7월 WTO에 제출한 초안에 따르면 어업관리, 연구조사, 양육시설, 구조조정사업, 자원조성사업 등과 같이 환경훼손이나 무역훼손을 야기하지 않는 지원은 계속 해도 무방하나, 저리용자, 세금감면, 어선건조·해외합작·어선수출지원 등과 같이 고정경비 및 운영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원은 어획능력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어업환경을 파괴하고, 가격지지사업, 정부수매사업, 수출보조 및 세금환불 등에 대한 지원은 소득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수산물 무역의 왜곡현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 19〉 수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점하는 비중

(단위: %)

구 분	1990	1995	1999
총 경제활동 인구중 수산업 종사 인구의 비중	1.14	0.85	0.80*
국내 총생산에서 수산업총생산이 점하는 비중	0.87	0.65	0.44
어가소득의 농가소득에 대한 비중	90.0	86.1	82.6

* 1998년도의 수치임.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우리나라 수산업이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 19>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수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중 수산업종사인구의 비중은 1990년 1.14%에서 1999년에는 0.80%로 감소했다. 1999년 수산업 총생산액은 같은 해 국내총생산의 0.4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것이 종사인구의 비중보다 적다는 것은 생산성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김 경 호

1999년도의 어가의 소득도 농가소득의 82.6%에 불과한데 이것도 1990년(90.0%)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수산업이 주로 생계유지형 중심으로 영세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태로는 앞으로 세계 수산물시장의 자유화, 개방화가 이루어질 경우 수산업이 받을 타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산업 전체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수산업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수산정책자금의 활용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의 수산정책자금이 주로 어업인 소득보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제는 어업경쟁력제고를 목적으로 신속히 그리고 대대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수산정책자금의 운영도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경쟁력이 없는 부문은 서서히 전업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전 업종, 전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지원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수 있는 업종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및 운영의 개혁이 필요하다. 수산정책자금 운영에서 나타나는 사업별 형평성의 문제, 자금의 초과수요 발생, 부실채권과 수협의 경영악화, 보조금지급과 사업부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은 물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VI. 결 론

WTO체제 성립 이후, 수산물분야의 개방화, 국제기구에서의 수산보조금에 대한 논의 등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더욱 경쟁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나라의 수산업부문이 전체경제에서 점하는 위치는 더욱 더 저하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산금융 면에서 고찰해 본 수산업의 현황에서도 우리나라 수산업의 취약한 구조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민들의 자산, 소득, 부채 구조가 90년대 말에 오면서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수산정책자금의 운영에서도 어민가계의 보조적인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수산시장개방이 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우리의 선택은 빠른 시일내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수산업의 미래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만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주로 IMF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수산금융의 현황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수산금융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논의가 현황파악을 중심으로 훌러버린 감이 없지 않다. 보다 구체적인 수산금융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호, UR타결후의 한국수산정책의 방향, 수산경영론집, 제24권 제2호, 1993.
- _____, WTO체제하의 수협정책의 방향, 부산여자대학 논문집, 제44집, 1997.
- _____, 한국수산금융정책의 방향, 수산경영론집, 제29권 제1호, 1998.
- 서종혁외 2인, 농수산 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 이광남, “수산보조금에 대한 OECD국가들과 한국과의 비교분석”, 수협조사월보, 2001. 3
- 이광남외 2인, 수산보조금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수협중앙회, 2000. 11.
- 정상진, 금융산업 개편과 수산업 금융의 발전방향, 수협중앙회, 1996.
- _____, 농업 및 수산업 정책금융의 비교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27권 제1호, 1996. 6.
- 통계청, 어가경제통계, 각년도.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년도.
- 한국수산회, 수산연감, 각년도.
- 수협중앙회, 수산통계조사월보, 각년도.
- 해양수산부, '98 및 99'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각년도.
- 해양수산부,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0.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 방안, 2001. 6.

Recent Developments and Policy Directions of Fisheries Finance in Korea

Kim, Kyoung-Ho

Abstract

In recent years Korea fisheries have been much more influenced than ever before by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market liberalization, sustainabilit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domestic fisheries, fisher's welfare etc. Under the wide range of environmental changes, government is carrying out various fisheries policies. However, it seems insufficient to accomplish policy goals under the existing policy instruments.

The main focus of the paper is to investigate structural changes and policy directions of fisheries finance in Korea after asian economic cri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sheries sector in whole economy has been lowering in its proportion. To survive in emerging global competition, fisheries sector is needed structural reformation. In particular the strategy that increases operativ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n government financial policy in fisheries sector is much expected. Also, it is necessary to minimize costs, to reform institution and management for increasin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Key Words : Fisheries Finance, Economic Crisis, Structural Reformation, Financial Policy in Fisheries Sector.